

## 2019년 상반기(4. 6.) 시행 소방직 국어 문제 해설(A형)

- 소방사관학원 국어 박우찬

2019년 상반기		문항 수	출제 영역
문법 8	문법론	5	음운 체계, 음운 변동(2014년 기출 동일), 단어 형성, 안은문장 분석, 높임법
	어문 규범	3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2(구별해야 할 단어, 띄어쓰기)
문학 6	고전 문학	3	조선전기 시조(송순, 황진이), 조선후기 가사(허전 「고공가」), 민요(베를 노래)
	현대 문학	3	현대시(신경림 「파장」), 수필2(성석제 「선물」)
독해 5	화법, 작문	1	설명 방식
	독서	4	사실적 독해3, 추론적 독해1
어휘 1	한자 성어	1	安貧樂道(안빈낙도, 한자성어 독음 없음)

1. 단어의 형성 방법이 다른 것은? [2019년 상반기 통합 소방]

- ① 기와집                      ② 지우개  
③ 선생님                      ④ 개살구

1. 정답 ① [단어 형성]

<해설> '기와집'은 어근 '기와'와 어근 '집'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 ② '지우개'는 어근 '지우-'와 접미사 '-개'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③ '선생님'은 합성어(또는 어근) '선생(先生)'과 접미사 '-님'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④ '개살구'는 접두사 '개-'와 어근 '살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적중] 모든 교재와 자료에서 적중!

『박우찬 힘찬 국어』 113쪽, 114쪽, 119쪽, 『박우찬 소방국어 기초편』 29쪽, 38쪽, 43쪽, 「힘찬 국어 문법핵심 특강」 등

소방사관학원

박우찬 국어 연구소(<http://cafe.daum.net/woo-chan>)

소방사관학원 박우찬 힘찬 국어 기출 해설

2. ㄱ, 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년 상반기 통합 소방]

<보 기>  
ㄱ. 우리 부모님께서는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신다.  
ㄴ. 우리는 이곳이 교통사고 발생의 빈도가 잦음을 전혀 몰랐다.

- ① ㄱ과 ㄴ 모두 명사절이 안겨 있다.
- ② ㄱ과 ㄴ 모두 안긴문장 속에 목적어가 있다.
- ③ ㄱ과 달리 ㄴ에는 안긴문장 속에 관형어가 있다.
- ④ ㄴ과 달리 ㄱ에는 안긴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2. 정답 ② [안은문장과 문장성분]

<해설> ㄱ과 ㄴ은 모두 안은문장이다. 그러나 ㄱ과 ㄴ 모두 안긴문장(절) 속에 목적어가 없다. 만약 안긴문장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다면 이 안긴문장은 명사절이 된다. 따라서 ㄱ과 ㄴ 모두 명사절이 안겨있음을 알 수 있다.

ㄱ. 우리 부모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신다. 무엇(명사절)=내가 시험에 합격하다.

ㄴ. 우리는 무엇을 전혀 몰랐다. 무엇(명사절)=이곳이 교통사고 발생의 빈도가 잦다.

[오답 풀이]

③ ㄴ에는 관형어 ‘교통사고, 발생의’가 있다.

④ ㄱ에는 부사어 ‘시험에’가 있다.

[적중] 다수의 교재와 자료에서 적중!

『박우찬 힘찬 국어』 138쪽, 139쪽, 144쪽, 『박우찬 힘찬 국어 최종모의고사』 제1회 5번, 제3회 12번, 제7회 7번, 「박우찬 힘찬 국어 파이널 모의고사」 제1회 8번, 「힘찬 국어 문법핵심 특강」 등

3. 밑줄 친 단어의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년 상반기 통합 소방]

- ① 보름에는 달이 밝다. [박따]
- ② 마루에 등불이 켜져 있다. [등뽕]
- ③ 음식이 앞마당에 차려져 있다. [암마당]
- ④ 여기저기 다니며 막일이라도 하자. [마길]

3. 정답 ④ [표준 발음법]

<해설> ‘막일’은 [막닐→망닐]로 발음한다. ‘ㄴ’ 첨가 후에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오답 풀이]

① 밝다[박다→박따].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겹받침 ‘러’은 자음 앞에서 원칙적으로 ‘ㄱ’으로 발음한다.

② 등불[등뽕]. ‘등’과 ‘불’이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경우에, 울림소리 자음 ‘ㅇ’ 다음에 된소리가 나므로 사잇소리 현상이다.

③ 앞마당[암마당→암마당].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 소방사관학원 박우찬 힘찬 국어 기출 해설

[적중] 다수의 교재와 자료에서 적중!

『박우찬 힘찬 국어』 250쪽, 255쪽, 259쪽, 263쪽, 266쪽, 『박우찬 소방국어 기초편』 84쪽, 87쪽, 93쪽, 97쪽, 99쪽, 『박우찬 통합 소방국어 기출문제집』 29쪽, 63쪽, 64쪽 등

4. 주체 높임이 실현되지 않은 문장은? [2019년 상반기 통합 소방]

- ① 할머니는 시장에 가셨다.
- ② 선생님을 모시러 교무실에 갔다.
- ③ 원래 어머니의 시력은 좋으셨다.
- ④ 고향에 계신 할아버지를 그리워했다.

4. 정답 ② [높임법]

<해설> ‘선생님을 모시러’에서 ‘모시러’는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이 실현되고 있다. 나머지 문장은 모두 주체 높임이 실현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셨다(가시었다).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 ③ 좋으셨다(좋으시었다).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시력을 높이고 있다. 간접 높임에 의해 결국 어머니를 높이는 표현이다.
- ④ [고향에 계신] 할아버지 → 대괄호로 표시된 관형절을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면, ‘할아버지가 고향에 계시다.’가 된다. 여기서 특수 어휘 ‘계시다’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적중] 다수의 교재와 자료에서 적중!

『박우찬 힘찬 국어』 162쪽, 163쪽, 179쪽, 180쪽, 『박우찬 힘찬 국어 단원별 문제풀이』 제3회 8번 등

5. 밑줄 친 어휘가 옳지 않은 것은? [2019년 상반기 통합 소방]

- ① 그는 나에게도 손을 벌렸다.
- ② 자동차가 가로수에 부딪쳤다.
- ③ 이따가 3시에 집 앞에서 만나자.
- ④ 과녁을 맞춘 화살이 하나도 없다.

5. 정답 ④ [구별해야 할 단어]

<해설> ‘목표물에 맞게 하다.’를 뜻하므로 ‘맞히다’를 써야 한다. 따라서 ‘맞힌’이 맞다. ‘적중’의 경우에는 ‘맞히다’를 쓰고, ‘비교, 조정’의 경우에는 ‘맞추다’를 쓴다.

[오답 풀이]

- ① ‘우므러진 것을 펴지거나 열리게 하다.’를 뜻하는 경우이므로 ‘벌리다’가 맞다.  
• 손을 벌리다: 관용구.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구걸하다.
- ② 부딪치다: ‘부딪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③ 이따가: 조금 지난 뒤에.

[적중] 다수의 교재와 자료에서 적중!

『힘찬 국어 올바른 단어 특강』 자료, 『박우찬 힘찬 국어』 350쪽, 352쪽, 354쪽, 374쪽 7번 8번 문제, 451쪽, 『박우찬 힘찬 국어 단원별 문제풀이』 제4회 14번 등

소방사관학원

박우찬 국어 연구소(<http://cafe.daum.net/woo-chan>)



## 소방사관학원 박우찬 힘찬 국어 기출 해설

[적중] 다수의 교재와 자료에서 적중!

소방사관학원 「주간자료」, 『박우찬 힘찬 국어』 327쪽, 332쪽, 『박우찬 힘찬 국어 총정리』 154쪽 2번, 『박우찬 힘찬 국어 단원별 문제풀이』 제4회 11번 등

8. 다음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년 상반기 통합 소방]

비극은 극 양식을 대표한다. 비극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발전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비극은 고양된 주제를 묘사하며,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된다. 그러나 비극의 개념은 시대와 역사에 따라 변하고 있다. 그리스 시대의 비극은 비극적 결함이라고 하는 운명의 요건으로 인하여 파멸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 냈다. 근대의 비극은 성격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로 인하여 패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준다.

비극은 그 본질적 속성이 역사적이라기보다 철학적이다. 비극의 주인공으로는 일상적인 주변 인간들보다 고귀하고 비범한 인물을 등장시킨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이른바 비극적 결함이라고 하는 운명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비극의 관객들은 이 주인공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공포와 비애를 체험하면서 카타르시스에 이르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같은 주장에 의해서 비극을 인간의 삶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결말이 불행하게 끝나는 것이 좋다고 보았으나, 불행한 결말이 비극에 필수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그리스 비극 가운데 결말이 좋게 끝나는 작품도 적지 않다.

- ① 비극적 결함에 의해 파멸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을 담은 것이 근대 비극이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비극이 모두 불행한 결말로 끝이 나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 ③ 그리스 시대 비극의 특징은 성격이나 상황의 문제로 인해 패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관객들은 비극을 통해 비범한 인간들의 운명에 대한 공포와 비애를 경험하면서 카타르시스에 이르게 된다.

8. 정답 ④ [사실적 독해]

<해설> 2단락 둘째 문장에서 비극의 주인공은 비범한 인물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2단락 넷째 문장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선지에 나타나고 있다. “비극의 관객들은 이 주인공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공포와 비애를 체험하면서 카타르시스에 이르게 된다.”

[오답 풀이]

① 근대 비극이 아니라 그리스 비극에 관한 설명이다. 1단락

→ “그리스 시대의 비극은 비극적 결함이라고 하는 운명의 요건으로 인하여 파멸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 냈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불행한 결말이 비극에 필수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2단락

→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결말이 불행하게 끝나는 것이 좋다고 보았으나, 불행한 결말이 비극에 필수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③ 근대 비극의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1단락 마지막 문장

→ “근대의 비극은 성격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로 인하여 패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준다.”

[적중] 다수의 교재와 자료에서 적중!

『박우찬 힘찬 국어』 1023쪽, 1041쪽, 소방사관학원 「주간자료」 등

소방사관학원

박우찬 국어 연구소(<http://cafe.daum.net/woo-chan>)

소방사관학원 박우찬 힘찬 국어 기출 해설

9.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년 상반기 통합 소방]

집의 옷밥을 언고 들먹는 저 고공(雇工)아, 우리 집 기별을 아는다 모른다. 비 오는 날 일 업슬 지숫 꼬면서 니르리라. ㉠처음의 한어버이 사름소리 흐려 흘 지, 인심(仁心)을 만히 쓰니 사름이 절로 모다, ㉡플 췌고 터을 닷가 큰 집을 지어 내고, 셔리 보십 장기 쇼로 전답(田畵)을 기경(起耕)하니, ㉢오려논 터밭치 여드레 그리로다. 자손(子孫)에 전계(傳繼)하야 대대(代代)로 내려오니, 논밭도 췌커니와 고공(雇工)도 근검(勤儉)터라. 저희마다 여름 지어 가옴여리 사던 것슬, 요스이 고공(雇工)들은 험이 어이 아조 업서, 밥 사발 크나 자그나 동웃시 췌코 즈나, ㉣마음을 듯호는 듯 호슈을 시오는 듯, 무슴 일 감드려 흘깃할깃 흐느는다.

- 허전, 「고공가(雇工歌)」

<보 기>

이 작품은 조선 왕조의 창업부터 임진왜란 직후의 역사를 농사일이나 집안 살림에 빗대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반목하는 요즘 고공들의 행태를 질책하고 있다.

- ① ㉠: 태조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창업한 사실과 관련지을 수 있다.
- ② ㉡: 나라의 기초를 닦은 조선 왕조의 모습과 관련지을 수 있다.
- ③ ㉢: 조선의 땅이 외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현실과 관련지을 수 있다.
- ④ ㉣: 신하들이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상황과 관련지을 수 있다.

9. 정답 ③ [조선후기 가사]

<해설> 조선 건국 당시의 기름진 조선 팔도를 가리킨다. → “올벼 논 텃밭이 여드레(8일) 동안 갈 만한 넓이로구나.”

<현대어 풀이>

집의 옷과 밥을 제쳐 놓고 이집 저집 빌어먹는 저 머슴(조정 직의 신하)아,  
우리 집 소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말하리라.

①처음에 조부님(조선을 건국하신 이성계)께서 살림살이 하려 하실 때,  
어진마음을 많이 쓰시니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서

②풀을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 내고  
씨레, 보습, 쟁기, 소로 전답을 일으키니,

③올벼 논 텃밭이 여드레 동안 갈 만한 넓이로구나.  
자손에게 이어 전하여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머슴들도 부지런하고 검소하였더라.  
저희마다 농사를 지어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았는데,  
요즈음 머슴들은 어찌하여 사려분별도 전혀 없어,  
밥그릇이 크나 작으나, 겨울옷(동웃: 남자가 입는 저고리)이 좋거나 나쁘거나,  
④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戶首, 5호의 우두머리)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을 꺼려서 반목(反目)만을 일삼느냐? <이상 본문>

## 소방사관학원 박우찬 힘찬 국어 기출 해설

너희들이 일을 안 하고 시절조차 사나워(흉년조차 들어서),  
가득이나 내 살림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옛그제 왜적들에게 약탈되어 가산이 탕진되니,  
집은 모두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네.  
크나큰 세간살이를 어찌하여 일으키려는가?  
김가와 이가 머슴들아, 새 마음을 먹으려무나.

<해제>

이 작품은 우의적으로 당시 사회상과 관리들의 정치적 무능을 비판한 글이다. 조부모님(이태조를 비유)이 살림을 시작하였을 때, 여드레 길이나 되는 논밭(조선의 팔도)을 가지고 모든 머슴들(조정 신하)이 부지런하고 검소하였다. 그러나 요즘의 머슴들은 사려분별도 없이 밥그릇의 크고 작음(나라에서 주는 녹봉)을 가지고 다투며 겨울옷의 좋고 나쁨만을 가린다. 그리고 강도(왜적)에게 가산을 약탈 당하여도 다시 세간살이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적중] 다수의 교재와 자료에서 적중!

『박우찬 힘찬 국어』 679쪽, 소방사관학원 「주간자료」 등

※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년 상반기 통합 소방]

도르래는 둥근 바퀴에 튼튼한 줄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감아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도르래는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이다. 그렇다면 두 도르래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고정 도르래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고정 도르래는 힘의 방향만 바꾸어 주는 도르래로 줄을 감은 바퀴의 중심축이 고정되어 있다. 힘의 이득을 볼 수는 없지만, 힘의 작용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정 도르래를 사용할 때는 줄의 한쪽에 물체를 걸고 다른 쪽 줄을 잡아 당겨 물체를 원하는 높이까지 움직인다. 이때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은 줄 하나가 지탱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 들어 올리는 것과 비교해 힘의 이득은 없으며 단지 고정 도르래 때문에 줄을 당기는 힘의 방향만 바뀐다. 하지만 물체를 높은 곳으로 직접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줄을 아래로 잡아 당김으로써 물체를 올리는 방법이 훨씬 편하다. 또한 물체를 1미터 들어 올리기 위해 잡아당기는 줄의 길이도 1미터면 된다.

한편 움직 도르래는 힘의 이득을 보기 위해 사용한다. 움직 도르래를 사용할 때는 도르래에 줄을 감고 물체를 들어 올린다. 움직 도르래는 도르래 축에 직접 물체를 매달기 때문에 줄을 당기면 물체와 함께 도르래도 움직인다. 이때 물체를 지탱하는 줄은 두 가닥이 된다. 물체의 무게는 각 줄에 분산되어 두 사람이 각각의 줄을 잡고 동시에 들어 올리는 효과가 난다. 따라서 움직 도르래 한 개를 사용하면 물체 무게의 2분의 1의 힘으로 물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물체를 1미터 들어 올리기 위해 당겨야 하는 줄의 길이는 물체가 올라가는 높이의 두 배인 2미터이다. 왜냐하면 물체가 1미터 올라갈 때 물체를 지탱하는 두 줄도 동시에 1미터씩 움직여야 하는데, 줄을 당기는 쪽으로 줄이 감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움직 도르래를 이용하여 물체를 들어 올리면 줄의 길이는 물체가 움직여야 하는 높이의 두 배가 필요하게 된다.

소방사관학원

박우찬 국어 연구소(<http://cafe.daum.net/woo-chan>)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고정 도르래는 도르래 축에 물체를 직접 매달아 사용한다.
- ② 움직 도르래와 고정 도르래를 함께 사용해야 물체의 무게가 분산된다.
- ③ 움직 도르래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높이는 줄의 길이에 영향을 받는다.
- ④ 고정 도르래는 줄을 당기는 힘의 방향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일치한다.

10. 정답 ③ [사실적 독해]

<해설> 움직 도르래의 경우 줄의 길이는 움직이는 높이의 두 배가 필요하게 된다고 한다. 3단락 마지막 문장에 잘 나타난다. → “그래서 움직 도르래를 이용하여 물체를 들어 올리면 줄의 길이는 물체가 움직여야 하는 높이의 두 배가 필요하게 된다.”

[오답 풀이]

- ① 움직 도르래에 관한 설명이다. 3단락
- ②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 ④ 고정 도르래는 힘의 작용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2단락

[적중] 다수의 교재와 자료에서 적중!

『박우찬 힘찬 국어』 1023쪽, 1041쪽, 소방사관학원 「주간자료」 등

1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 사례를 통해 개념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대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대상의 인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 ④ 특정 기술이 발달한 과정을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11. 정답 ② [글의 전개 방식]

<해설>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대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 방식을 ‘대조’라고 한다. 1단락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 글의 전개 방식이 잘 드러난다. → “그렇다면 두 도르래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적중] 다수의 교재와 자료에서 적중!

『박우찬 힘찬 국어』 959쪽, 「2018년 11월 소방사관학원 모의고사」 2번, 「박우찬 힘찬 국어 합격예감 모의고사」 제1회 7번 등

12.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년 상반기 통합 소방]

<p>㉠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이발소 앞에 서서 참외를 깎고 목로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켜면 모두들 한결같이 친구 같은 얼굴들</p> <p>㉡ 호남의 가뭄 얘기 조합 빛 얘기 약장수 기타 소리에 발장단을 치다 보면 왜 이렇게 자꾸만 서울이 그리워지나 어디를 들어가 섰다라도 별일까 주머니를 털어 색짓집에라도 갈까</p> <p>㉢ 학교 마당에들 모여 소주에 오징어를 찢다 어느새 긴 여름 해도 저물어 고무신 한 켤레 또는 조기 한 마리 들고</p> <p>㉣ 달이 환한 마창길을 절뚝이는 파장</p> <p style="text-align: right;">- 신경림, 「파장」</p>
---

- ① ㉠: 농민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유대감을 보여 준다.
- ② ㉡: 농민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난다.
- ③ ㉢: 어려움을 극복한 농민들의 흥겨움이 드러난다.
- ④ ㉣: 농촌의 힘겨운 현실을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2. 정답 ③ [현대시]

<해설> 농민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자포자기의 심정, 농촌의 힘겨운 현실에 대한 울적함과 탄식이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④ 절뚝이는 파장: 실제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를 나타내면서, 삶의 무게와 농촌의 힘겨운 현실에 휘청거리는 모습을 동시에 담은 중의적 표현이다.

[적중] 다수의 교재와 자료에서 적중!

『박우찬 힘찬 국어』 811쪽, 소방사관학원 「주간자료」, 「힘찬 국어 현대문학 특강」 등



소방사관학원 박우찬 힘찬 국어 기출 해설

[적중] 다수의 교재와 자료에서 적중!

『박우찬 힘찬 국어』 615쪽, 670쪽, 1188쪽, 1219쪽, 『박우찬 힘찬 국어 최종모의고사』 제3회 6번, 「힘찬 국어 고전문학 특강」 등

15.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년 상반기 통합 소방]

기심 매러 갈 적에는 갈뽕을 따 가지고  
 기심 매고 올 적에는 올뽕을 따 가지고  
 삼간방에 누어 놓고 청실홍실 뽐아내서  
 강릉 가서 날아다가 서울 가서 매어다가  
 하늘에다 베틀 놓고 구름 속에 이매 걸어  
 함경나무 바디집에 오리나무 복게다가  
 짜궁짜궁 짜아 내어 가지잎과 뭉겨워라  
 배꽃같이 아래워서 참외같이 올 짓고  
 외씨 같은 보선 지어 오빠님께 드리고  
 겹옷 짓고 솜옷 지어 우리 부모 드리겠네  
 - 작자 미상, 「베틀 노래」

- ① 노동 현실에 대한 한과 비판이 드러나 있다.
- ② 대구법과 직유법 등의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③ 4·4조의 운율과 언어 유희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화자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과장되게 표현한 부분이 나타나 있다.

15. 정답 ① [민요]

<해설> 베를 짤 때의 흥겨움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② 배꽃같이 아래워서 참외같이 올 짓고 → 베틀에서 짜낸 베를 표백하고 옷을 만드는 것을 직유법을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다. 대구법은 작품 곳곳에 나타난다. → 기심 매러 갈 적에는 갈뽕을 따 가지고 / 기심 매고 올 적에는 올뽕을 따 가지고

③ 1~2행을 보면 잘 나타난다. 주로 4·4조의 운율이 나타나고, 아래와 같이 ‘갈’과 ‘올’이라는 유사한 발음, 또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언어 유희를 하고 있다. 언어 유희도 리듬감 형성에 기여한다.

기심(김) 매러 / 갈 적에는 / 갈뽕을 / 따 가지고

기심(김) 매고 / 올 적에는 / 올뽕을 / 따 가지고

④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 느끼는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목이 나타난다.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강릉 가서 / 날아다가(날실을 걸어다가) / 서울 가서 / 매어다가(감아다가)

하늘에다 / 베틀 놓고 / 구름 속에 / 이매(굵은 실) 걸어

<해제> 1. 특징

- ① 강원도 통천 지방에서 전해지는 민요로, 베를 짤 때 여인들이 부르는 노동요이다.
- ② 언어유희, 반복법, 4음보를 바탕으로 한 4·4조의 음수율.
- ③ 추보식 구성(뽕잎을 따는 데서부터 옷을 짓기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노래함)

## 소방사관학원 박우찬 힘찬 국어 기출 해설

### 2. 구성

- [1] 누에를 치기 위해 뽕잎을 따.
- [2] 누에를 쳐 실을 뽑아 베틀에서 베를 짠.
- [3] 비단으로 가족들의 옷을 지으려 함.

[적중] 다수의 교재와 자료에서 적중!

『박우찬 힘찬 국어』 536쪽, 682쪽, 『박우찬 힘찬 국어 최종모의고사』 제2회 18번 등

### 16. 다음에서 알 수 있는 ‘나’의 이름은? [2019년 상반기 통합 소방]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름은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맞닿아서 나는 소리가 한 개 들어 있습니다. 파열음이나 파찰음은 없고 비음이 포함되어 있어서 발음하기 부드럽습니다. 제 이름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는 가장 높았다가 낮게 내려가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기도 합니다. 제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민애                      ② 진주
- ③ 하은                      ④ 정빈

#### 16. 정답 ① [음운 체계]

<해설> [1] 자음: 발음 위치와 관련하여 두 입술이 맞닿아 나는 소리는 ‘입술소리’를 말한다. ‘양순음’이라고도 하며, ‘ㅂ/ㅃ/ㅍ, ㅁ’이 있다. 발음 방식과 관련하여 ‘파열음’이나 ‘파찰음’은 없고, ‘비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파열음에 ‘ㅂ/ㅃ/ㅍ, ㄷ/ㄸ/ㅌ, ㄱ/ㄲ/ㅋ’, 파찰음에 ‘ㅈ/ㅉ/ㅊ’이 있다. ‘비음’에는 ‘ㄹ, ㄴ, ㅇ(받침)’이 있다.

→ 이름 중에서 ‘민애’만 조건에 맞다. ‘ㄹ’은 입술소리이자 비음이며, ‘ㄴ’은 비음이다.

[2] 모음: 혀의 위치가 가장 높았다가 낮게 내려간다고 하였으므로 고모음에서 중·저모음으로 옮겨 가는 이름을 찾아야 한다. 단모음 중에서 고모음은 ‘ㅣ, ㅟ, ㅠ, ㅡ’가 있다.

→ ‘민애’는 첫음절의 모음이 ‘ㅣ’이고, 둘째 음절의 모음이 ‘애’이므로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옮겨 가고 있다.

[적중] 다수의 교재와 자료에서 적중!

『박우찬 힘찬 국어』 35쪽~37쪽, 『박우찬 힘찬 국어 최종모의고사』 제1회 8번, 「박우찬 힘찬 국어 파이널 모의고사」 제1회 10번, 「힘찬 국어 문법핵심 특강」

※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년 상반기 통합 소방]

(가) 최근 들어 ‘낯이다’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쓰고는 한다. 물론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니다. 가령 인터넷상에서 호기심이나 관심을 발동시키는 기사 제목을 보고 그 기사를 읽어 보았지만, 그럴 만한 내용이 없었을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 즉 ‘낯이다’라는 말은 기사 제목이 던지는 미끼에 현혹되어 그것을 물었지만 소득 없이 기만만 당하였다는 의미이다. ‘낯시질’은 특히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특징적인 현상이다.

소방사관학원

박우찬 국어 연구소(<http://cafe.daum.net/woo-chan>)

(나) 캐나다의 매체 이론가인 마셜 맥루언은 “매체는 메시지이다.”라고 하였다. 매체란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을 말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자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메시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그에 따르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언어는 물론이거니와 노동의 도구들조차 인간과 노동 대상 사이를 매개하는 물건이므로 매체에 속한다. 따라서 새로운 매체가 개발되면 그것을 통해 인간의 활동 영역이 훨씬 더 확대되므로 ‘매체는 인간의 확장’이라고 했다.

(다) 매체가 가지는 능동적인 힘을 인정한다면, 매체가 단순히 메시지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거나 중립적일 수도 있다는 견해는 환상에 지나지 않게 된다. 매체가 중립적이지 않다면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들도 자연 중립적일 수가 없다. 앞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신문 기사 제목의 ‘뉘시질’을 문제 삼았지만 인터넷 이전의 언론 매체들이라고 해서 모두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 왔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 상업적이고 퇴폐적인 방송이나 기사, 자칫하면 국수주의로 흐를 수도 있는 스포츠 중계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윤 동기에 지배당하는 매체 회사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손바닥도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 없는 법, 상업화로 균형 감각을 상실한 방송이나 기사를 흥미롭게 보는 수용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남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욕망, 불행한 사건·사고들을 수수방관하면서도 그 전말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히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 집단의 열광 속에 파묻혀 자신이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보상받고 싶어 하는 수동적 삶의 태도 등은 황색 저널리즘과 ‘뉘시질’이 성행하는 터전이 된다. 바로 ‘우리가 그들의 숨은 동조자일 수 있다.

17. 밑글로 알 수 있는 내용은?

- ① ‘뉘시질’은 남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는 행위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특징적인 현상이다.
- ② 이윤 동기에 지배당하는 매체 회사들을 바로 상업적 방송의 ‘숨은 동조자’라 할 수 있다.
- ③ 신문 기사와 같은 매체 자료는 생산자의 주관적 동기에 영향을 받는다.
- ④ 매체 회사들이 생산한 매체 자료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

17. 정답 ③ [추론적 독해]

<해설> (다)에서 필자는 매체뿐만 아니라 매체가 전달하는 메시지들도 중립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인터넷 이전의 언론들도 그 사례로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로 미루어 볼 때, 신문 기사와 같은 매체 자료는 생산자의 주관적 동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끌어 낼 수 있다. → “매체가 중립적이지 않다면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들도 자연 중립적일 수가 없다.”

[오답 풀이]

- ① (가) ‘뉘시질’은 인터넷상에서 호기심이나 관심을 발동시키는 기사와 관련이 있다.
- ② (라) 상업화로 균형 감각을 상실한 방송이나 기사를 흥미롭게 보는 수용자들(우리들)을 상업적 방송의 ‘숨은 동조자’로 볼 수 있다.

[적중] 다수의 교재와 자료에서 적중!



한밤중에 나는 선물이 우는 소리에 잠을 깬다. 내 옆, 옆과 그 옆, 그 옆에 자고 있는 그 누구도 잠을 깨거나 일어나지 않았다. 방을 나가서 바깥에 있는 화장실로 가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 선물이 우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사실 오줌이 마려웠던 것도 아니었다. 선물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건 다리를 덜덜 떨며 킁킁거렸다. 나는 배가 고파서 우는 걸로 알았다. 부엌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뭘 가져다줄 수 없었다. 나는 그날 저녁 내 몫으로 받고 아껴 먹다 남겨 둔 백설기를 가지고 나왔다. 접시에 물을 담아 ⊖백설기와 함께 큰맘 먹고 내밀었다. 선물은 내 선물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 그저 킁킁거리며 다리를 떨며 울 뿐이었다. 나는 무시당한 데 대해 화가 났다. 선물을 철회했다. 백설기를 집어 들면서도 물은 그냥 두었다. 울다 보면 목이 멎지도 모르고 물은 그럴 때 먹으면 되니까.

방으로 돌아와 누웠을 때에도 선물의 울음소리는 계속 해서 들려왔다. 천둥 치듯 아버지는 코를 골았지만 선물의 가느다란, 여린 킁킁거림은 정확하게 나의 청각을 자극 하고 잠 못 들게 했다. 결국 다시 밖으로 나갔다. 철회했던 선물을 다시 주고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선물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하자 울음이 그쳤다. 선물은 너무 어려서 백설기를 먹을 수 없었다. 물을 마시지도 않았다. 다만 관심과 연민에 반응할 수 있을 뿐이었다. 관심과 ⊕연민의 공급이 중단되면 즉시 울음이 시작됐다. 결국 나는 내복 바람으로 날이 밝아 오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강아지를 선물했다. 나는 강아지에게 백설기를 선물했다. 밤이 아침을 선물하듯 강아지는 내게 난생처음 경험하는 연민의 감정을 선물했다.

- 성석제, 「선물」

19. ‘강아지’에 대한 ‘나’의 감정 변화로 (가), (나)에 가장 알맞은 것은?

(가) → 궁금함 → 화남 → (나)

- |       |     |
|-------|-----|
| (가)   | (나) |
| ① 즐거움 | 불쌍함 |
| ② 난처함 | 사랑함 |
| ③ 즐거움 | 사랑함 |
| ④ 난처함 | 불쌍함 |

19. 정답 ④ [수필]  
 <해설> [1] 필자에게 강아지는 처치 곤란하고 낯선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말은 ‘난처함’이 적절하다. →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이라는 유목적이고 도시적인 환경으로 전학 온 내게 아버지가 선물이라며 준 강아지는 내가 그때까지 보아 온 가축이 아니라 처치 곤란하고 ‘낯선 것’이었다.”  
 [2] 필자에게 강아지는 관심과 연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나)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말은 ‘불쌍함’이 적절하다. → “관심과 연민의 공급이 중단되면 즉시 울음이 시작됐다.”

[적중] 다수의 교재와 자료에서 적중!  
 『박우찬 힘찬 국어 합격예감 모의고사』 제1회 12번 같은 작품 정답 포함, 『박우찬 힘찬 국어 최종모의고사』(2018년 상반기, 하반기 대비), 소방사관학원 「주간자료」

소방사관학원 박우찬 힘찬 국어 기출 해설

20. 밑글의 내용에 비춰 볼 때 ㉠~㉣ 중 내포하는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20. 정답 ② [내포적 의미]

<해설> 내포적 의미는 문맥적 의미를 말한다. 이 글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강아지, 백설기, 연민’은 모두 선물이라는 내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버지’는 내게 낯선 선물을 준 사람이다.

→ “아버지는 강아지를 선물했다. 나는 강아지에게 백설기를 선물했다. 밤이 아침을 선물하듯 강아지는 내게 난생처음 경험하는 연민의 감정을 선물했다.”

[적중] 다수의 교재와 자료에서 적중!

「박우찬 힘찬 국어 합격예감 모의고사」 제1회 12번 같은 작품 정답 포함, 『박우찬 힘찬 국어 최종모의고사』(2018년 상반기, 하반기 대비), 소방사관학원 「주간자료」

※ 기출해설 특강은 소방사관학원 홈페이지 또는 박우찬 국어 연구소(다음 카페)에 있습니다.